

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장 김 형 만
의대신문
전화 7128 (여주)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로동270-1
인쇄인 조인환·박 주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02호)
(등록번호 제 253호)

제 302호
<주간>
1980년 9월 26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창간 1959년 4월 11일



학내 보직이동 단행

교무처장에 임원전교수
서명 환교수는 학생처장에

본대학은 2학기 개강을 앞둔 25일 교무처장인 서명환교수와 학생처장인 임원전교수의 보직이동 단행 소식을 보도했다.

임원전교수는 교무처장에, 서명환교수는 학생처장에 각각 보직이동되었다. 임원전교수는 1978년 1학기부터 학생처장에 보직되어 왔으며, 서명환교수는 1979년 1학기부터 교무처장에 보직되어 왔다.

이날 보직이동은 교무처와 학생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임원전교수는 교무처에서 학생처로, 서명환교수는 학생처에서 교무처로 이동했다.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18일만에 개강

캠퍼스 오랜만에 다시 활기 찾아
중간고사 10.27~11.3, 기말고사 81.15~1.13
1학년 병영훈련 11.12~21, 겨울방학 81.2.4

9월 12일 금요일 이른침례는 1980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침례를 받은 학생들은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캠퍼스 생활을 할 예정이다.

중간고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말고사는 81.1.15일부터 81.1.13일까지 실시된다. 1학년 병영훈련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겨울방학은 81.2.4일부터 시작된다.

본대학 81년부터 전기 종합대

본대학은 81년부터 전기 종합대학으로 개편된다. 이는 본대학의 학제 개편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의올림픽 축제

10월 13일~18일까지

본대학 학도호국단은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모의올림픽 축제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정화 추진위원회 구성

3차장 비릇 교수 23명

본대학 정화추진위원회는 3차장 비릇 교수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본대학의 정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도 교수제 강화

학과 중심의 지도체제로

본대학은 지도 교수제를 강화하여 학과 중심의 지도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어과 김동선 교수

제9대 학장직에 임명

본대학 영어과 김동선 교수는 제9대 학장에 임명되었다. 김 교수는 본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학업 지도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학도호국단 부활

총학생장에 최동규군 (Sw-3)

본대학 학도호국단은 최동규군 (Sw-3)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단은 본대학의 학도 정신을 계승하고, 학도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28기 수습기자 모집

본대학은 제28기 수습기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본대학 재학생으로, 학업 지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다. 모집 절차와 자격 요건은 본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외대문인의 동문록

제18회 11월말 작품마감

본대학 외대문인 동문록 제18회 작품마감일은 11월말이다. 이 동문록은 본대학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소개하고, 문인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 13명, 신규 임용

종합대학 2학에 대비한 조치로

본대학은 교수 13명을 신규 임용했다. 이는 종합대학 2학에 대비한 조치로, 학과별 교수 충원을 위한 것이다.

사령

본대학 사령은 본대학의 주요 소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령에는 본대학의 주요 행사, 학업 지도, 학생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이 실린다.

민속경기의 再發見 ① 씨름

우리 민족의 전통 경기인 씨름은 1980년 9월 26일 발행의 외대학보에 소개되었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온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온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대

현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근검·절약·지속의 생활화

근검·절약·지속의 생활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 미덕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덕을 생활화하고, 사회에 공헌할 것이다.

1295

